

셸링의 인간 자유의 개념과 통일의 회복으로서의 국가와 교회

박 영 선*

주제분류 서양철학, 독일관념론

주요어 정신철학, 인격성, 실존, 근거, 악, 자유

요약문

본 논문은 『개인강의』가 제시하고 있는 정신계의 철학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셸링은 『나의 체계의 서술』(1801)이야말로 “자신의 체계에 관한 유일한 학문적 서술”이지만 이것은 단지 철학의 실제적 부분, 즉 자연철학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체계가 미완성에 머물렀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완전한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철학 이외에 정신계의 철학(Philosophie der Welt des Geistes), 즉 철학의 관념적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첫째, 인간적 자유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셸링의 인간의 자유 개념은 ‘인격성’의 개념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를 밝히기 위해서 ‘실존’으로서의 절대자 개념과 ‘근거’로서의 절대자 개념이 뜻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자연과 신 사이의 중간적 지위로서의 인간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신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신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롭다. 따라서 인간이 한편으로 자연을 넘어 정신으로 상승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유와 다른 한편 신적 실존의 ‘근거’ 내지 자연에 자신의 뿌리를 가짐으로써 성립하는 자유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인간 자유의 본질을 이루는 ‘실재성’으로서의 악을 살펴볼 것이다. 셸링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악을 실행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셸링이 규정한 ‘신과 악의 능력으로서의 인간’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칸트

* 중앙대학교

로부터 물려받은 ‘지성적 행위’(intelligible Tat)와 ‘근본악’의 개념에 의해 셸링이 제안한 도덕적 차원의 악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단절과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이 지닌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정신적 세계를 매개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만일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자연은 우연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인간도 자기성에 사로잡혀 ‘자연으로 퇴행’하게 된다. 여섯째, 통일의 회복을 위한 제도로서의 국가와 교회를 살펴볼 것이다. 셸링은 제도로서의 국가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링은 『개인강의』에서 국가는 종교적 기반을 가져야 할 필연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는다.

들어가는 말

셸링은 1809년 『자유론』 외에 다른 논문을 엮어 “셸링의 철학적 저작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¹⁾ 서언에서 1801년에 출간된 『나의 체계의 서술』과 『자유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나의 체계의 서술』이야말로 “자신의 체계에 관한 유일한 학문적 서술”(SW I/7, 334)이지만 이것은 단지 철학의 실재적 부분, 즉 자연철학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체계가 미완성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셸링은 포괄적이고 완전한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 자연철학 이외에도 정신계의 철학(Philosophie der Welt des Geistes)이 보완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관념적 부분의 보완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1804년에 출간된 『철학과 종교』이었으나 이 역시 “부족한 서술 때문에 불명확하게 남고”(SW I/7, 334) 말았고, 이에 반해 이제 비로소 『자유론』에 이르러 “철학의 관념적 부분의 개념을 철저하게 규정적으로 논하게 되었다”(ibid)고 고백한다.

이렇듯 셸링은 자연철학과의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정신철학에 의해 철학 체계의 완성을 기획하는데 무엇보다 『자유론』과 그리고 일 년 뒤에 출판된 『개인강의』²⁾가 이런 기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저술에 속한다. 셸링은 『자유론』 서언에서 “이 글은 (...)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적인 서술보다도 이미 체계 전체에 대해 더 깊은 해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SW I/7I, 334)고 주장할 정도로 그는 『자유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또 『자유론』 종결부에서 “현재의 논고에는 일련의 다른 논고들이 이어질 것이며, 그 안에서 철학의 관념적 부분들의 전체가

1) 『자유론』의 원제목은 『인간 자유의 본질과 그것에 연관된 대상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들』이다. 이하에서 『자유론』으로 축약하고 면수는 본문에 괄호로 표시한다. Schelling, Sämtliche Werke, I. Abteilung(Bde.1-10), II. Abteilung(Bde.1-4), hrsg. v. Karl Friedrich August Schelling, Stuttgart/Augsburg 1856-1861

2) 『개인강의』의 원제목은 『슈투트가르트 개인강의』이다. 이하에서 『개인강의』로 축약하고 면수는 본분에 괄호로 표시한다.

접차적으로 서술될 것”(SW I/7, 416)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또 『개인강의』 중 정신철학을 주로 다루는 제III장에서 셸링은 이전에 다루어진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전체 철학 그리고 특히 자연철학의 체계』(1804)에서 제기되고 『자유론』에서 발전적으로 논구되었던 주제들을 언급한다. 이렇듯 셸링은 『자유론』 이후의 핵심 주제가 정신계의 철학과 관련됨을 거듭 강조한다. 물론 1804년 이후의 저술들이 다루는 관념적인 주제는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술의 “주요 논점”은 “의지의 자유, 선과 악, 인격성 등”(SW I/7, 334)의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인강의』도 논의의 출발을 『자유론』과 유사한 주제들로 시작하되 이전의 저술들에서 언급된 적이 전혀 없거나 혹은 단초적으로 지적된 물음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논문은 『개인강의』 중 관념적 부분³⁾에 해당하는 주제와 개념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인간적 자유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셸링의 인간의 자유 개념은 ‘인격성’의 개념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를 밝히기 위해서 ‘실존’으로서의 절대자 개념과 ‘근거’로서의 절대자 개념이 뜻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자연과 신 사이의 중간적 지위로서의 인간은 자연과 신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롭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한편으로 자연을 넘어 정신으로 상승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유와 다른 한편 신적 실존의 ‘근거’ 내지 자연에 자신의 뿌리를 가짐으로서 성립하는 자유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인간 자유의 본질을 이루는 실재적 의미에서의 악을 살펴볼 것이다. 셸링은 인간이 자

3) 『개인강의』의 관념적 부분(정신계의 철학)에 해당하는 6번째와 7번째 강의는 『자유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간의 자유와 악의 근원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와 교회의 제도에 대한 주해와 그리스도론에 관한 개략적인 윤곽을 제시한다. 8번째와 마지막 9번째 강의는 인간의 영혼 불멸 및 내세를 서술함으로써 정신계의 철학으로서 최정상을 이룬다. 본 논문에서 그리스도론과 영혼불멸 및 내세에 대한 셸링의 언급은 다루지 않는다.

유롭다는 것은 인간이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악을 실행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셸링이 규정한 ‘선과 악의 능력으로서의 인간’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칸트로부터 물려받은 ‘지성적 행위’와 ‘근본악’의 개념에 의해 셸링이 제시하는 도덕적 차원의 악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단절과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상승하여 정신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적 원리와 정신적 원리를 자신 안에서 결합한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과 정신적 세계를 매개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다. 만일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자연은 우연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인간도 자기성에 사로잡혀 ‘자연으로 퇴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통일의 회복을 위해 제도로서의 국가와 교회를 살펴볼 것이다. 셸링은 제도로서의 국가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강의』에서 국가는 종교적 기반을 가져야할 필연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1. 인간 자유의 개념과 악의 가능성

1.1 인격성으로서의 인간

셸링은 『자유론』에서 처음으로 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인간 고유의 자유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가 절대자로부터 사물들, 특히 인간을 차별화(Differenzierung)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비로소 『자유론』에서 새롭게 착상된 것으로서 동일성철학의 사유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절대자는 개별적 사물에서 작용하고 행위하는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개별적 존재가 자유인 한 개별적 사물에서 작용하고 행위하는 것은 개별적 존재 자체라는 것이다. 이런 사유의 전환은 셸링이 자신의 철학을 스피노자와 분리시켜야 할 필연성을 철학의 관념

적 부분의 발전 과정 중에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셸링은 1804년의 저술들에서 비로소 정신계를 처음으로 제시하지만 이 시기의 저술들은 『자유론』과 비교해 보면 의지의 자유, 선과 악, 인격성의 개념 등의 ‘주요 논점’을 발견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새로운 논점은 모두 새로운 전제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신으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셸링은 ‘인격성’의 개념을 새로이 수립하게 된다. 셸링이 비로소 1809년도의 『자유론』에서 파악한, 인간이 절대자로부터 상대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다는 전제는 관념적 부분의 주제 범위에 속하는 논점을 위한 출발점을 형성한다.

『자유론』은 “실존하는 한에서의 존재(Wesen)와 그 실존의 단순한 근거(Grund)인 한에서의 존재를 구분”(SW I/7, 357)하는데서 시작한다.⁴⁾ 절대자의 본질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셸링은 사물들을 신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고찰하게 된다. 사물들을 절대자의 본래적 존재 혹은 절대자의 “실존”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실존의 “근거”에서 산출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사물들은 한편으로 신과는 분리된 것으로 사유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과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사물들은 신의 안과 밖에(in und außer Gott) 동시에 존재한다.⁵⁾

4) 실존의 ‘근거’는 실존하는 존재가 실존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 다른 용어로 ‘기초’, ‘기반’ 또는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한한 사물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다른 것에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신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만 스피노자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셸링은 스피노자와 달리 “신과 자연을 혼동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연철학을 옹호”(최신한, “선악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유”, 『인간적 자유의 본질』, 한길사, 2000, 39쪽)하기 위해서 신의 실존과 신 실존의 근거를 구분하였다. Christian Iber, “Prinzipien von Personalität in Schellings ‘Freiheitsschrift’”, in: *Alle Persönlichkeit ruht auf einem dunkeln Grunde*, hrsg. v. Thomas Buchheim und Friedrich Hermanni, Berlin 2004, 120f. 참조

5) 신의 ‘실존’과 ‘근거’의 개념에는 한편으로 무로부터 세계의 창조를 거부(ex nihilo nihil fit)한 고대 그리스적 전통과 다른 한편 무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주장한 기독교적인 관념이 들어 있다. 기독교적 사유 방식과 달리 셸링은 신이 세

사물들 특히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자와 관계맺음으로써 동일성철학에서 상실한 것처럼 보이던 참된 자율성을 획득한다. 셸링이 의미한 자율성의 개념은 이제 ‘인격성’에서 그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것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 곧 『자유론』의 과제이다.

셸링은 비로소 『자유론』에서 절대적 동일성의 원리 대신에 생명적·창조적 차별성의 원리에 따라 사유한다.⁶⁾ 셸링은 실재와 관념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개별 존재들의 성립을 설명한다. 셸링의 절대자와 관련하여 시도한 구분법은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된다. “자연 안에 발생하는 모든 존재는 자신 안에 이중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의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오직 하나이며 동일한 원리일 뿐이고, 단지 두 가지 가능한 측면에서 고찰된 것일 뿐이다.”(SW I/7, 362) 실재적 원리는 인간의 근원이 절대자의 ‘근거’(=자연)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재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본래적 기반을 의미하지만 이것에 포함된 보다 결정적인 의미는, 실재야 말로 “인간이 신으로부터 구분되는 원리”(SW I/7, 364)라는 점이다. 그래서 셸링은 실재적 원리를 인간의 “자기성”(Selbstheit) 또는 “고유의지”(Eigenwille)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보편의지”(Universalwille) 또는 관념적 원리는 본래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신적인 계기를 지칭한다(SW I/7, 363f.). 셸링은 두 가지 존재 원리의 관계로부터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인격성의 개념을 전개한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서만 고유의지가 보편의지로 끌어올려진다. 다시

계의 창조를 위해 필요한 질료를 자신의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사고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든 사물의 근원 질료는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일치한다. 하지만 신이 세계를 형성하는 근원 질료를 신의 일부라는 간주하는 사유 방식은 고대 그리스적 사유와는 다르다. 따라서 셸링은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을 ‘신으로부터의 창조’ 개념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Franz Josef Wetz, *Friedrich W.J. Schelling zur Einführung*, Hamburg 1996, 146f. 참조).

- 6) 동일성에서 차이성으로의 전환과 생성으로서의 신의 개념에 관하여 줄고, “셸링철학의 원리와 신의 개념”, 『대동철학』, 2013, 235쪽 이하 참조.

말해 인간에서만 자연의 원리인 실재적 원리가 관념적 원리와 완전히 결합됨으로서 **정신(Geist)**이 나타난다.⁷⁾ 자기성은 그 자체로는 무력하다. 물론 자기성은 인간이 “자기적이고 (신과 구분되는) 개체적 존재로”(SW I/7, 364) 고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개체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측면이 정신적 생명으로 끌어올려질 때이다. 인간이 신적인 것에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실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개체적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성은 결국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로 성립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들은 피조물 가운데 최상의 존재인 인간에 침투해 들어가 실질적 통일성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인격성은 그 개념에 따라 “정신성으로 고양된 자기성”(SW I/7, 370)으로 정의된다.

셸링이 『철학과 종교』에서 파악한 인간은 아직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셸링은 이 저술에서 인격성 보다는 “개인성”(Individualität)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개념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성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에서 성립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적 사물과 유한적 사물에 의해 채워진 (...) 영혼은 (...)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⁸⁾ 이에 반해 셸링이 『자유론』에서 인간을 하나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영속할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셸링이 새로이 제안한 인격성은 초시간적이다. 따라서 인격성의 개념은 셸링이 『개인강의』에서 발전시킨 불멸성의 이론⁹⁾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

7) 셸링은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연의 근거로부터 분출된 원리는 인간을 신으로부터 구분짓는 것인데, 그 원리가 바로 인간 안의 자기성이다. 그러나 이 자기성은 관념적 원리와의 통일에 의해 정신이 된다. 즉 자기성이 곧 정신이다.”(SW I/7, 364)

8) Schelling, *Philosophie und Religion*, SW I/6, 61.

9) 정신의 불멸성에 관한 논의는 『개인강의』 SW I/7, 465 이하에서 전개되지만 본

한다. 비록 인격성의 개념이 『개인강의』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인격성의 개념은 새로운 주제를 위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인격성의 개념이 『개인강의』에서 처음으로 영혼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면서 인격성 개념이 의미하는 영역이 보다 포괄적이 된다.

1.2 자연과 신의 중간적 지위로서의 인간

셸링은 『자유론』에서 “인간적 자유의 특수성”(SW I/7, 352)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실존의 ‘근거’(Grund) 가운데 있는 절대자와 ‘실존’(Existenz) 가운데 있는 절대자의 차별에 근거하여 인간을 신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셸링은 인간의 개별성과 상대적 자립성을 정당화하는 인격성의 개념을 수립한다. 인간적 자유의 정립을 위한 관점의 전환은 우선 동일성철학의 사유가 폐기됨으로서 이룩된다. 동일성철학에서 인간의 자유는 유일한 자율적 존재로서의 신에 참여(Teilhabe)함으로서 가능하였다.¹⁰⁾ 그러나 셸링은 『자유론』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인간에 속한 고유한 자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유론』에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 가운데 존재한다는 조건이 확립되면서 인간의 자유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유론』은 인격성의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인간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주제화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격성은 ‘자기성’을 ‘정신’으로 고양하는데서 성립한다. 인격성은 자연적-피조물적 요소와 순수한 정신적 요소의 이중의 존재론적 구조를 지닌다. 인간의 자유는 한편으로 ‘자연’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의 이중적

논문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10) 물론 셸링은 『자유론』에서도 인간의 자유는 오직 신 가운데(in)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유론』에서 ‘신-안에-있음’은 동일성철학에서와는 다르다. 인격성으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을 정초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신의 자유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의 물음이 본 논문 하단에서 다루어 지는 주제이다.

근원에서 성립한다. 인간의 자유가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은 자연과 신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처한 이런 사태를 셸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성이 곧 정신이라는 것에 의해 자기성은 동시에 피조물로부터 초피조물로 고양된다. 즉 자기성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유 안에서 내려다보는 의지이다. 그것은 더 이상 자연 안에서 생산되는 보편의지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연 위에 그리고 모든 자연 밖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SW I/7, 364)

자기성이 정신으로 고양됨으로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이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둠의 원리가 빛으로 변용됨으로서 인간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유론』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¹¹⁾ 그 대신 셸링은 정신의 개념으로 관심을 환기하면서, 모든 차별을 넘어선 정신의 숭고성이야말로 『자유론』의 핵심으로서, 결국 정신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정신은 자연 안에서 빛과 어두운 원리의 통일성 너머로 자신을 고양하듯이 빛 너머에 있다. 그리고 자기성은 곧 정신임으로 그 두 원리(빛과 어둠의 원리 - 필자)로부터 자유롭다.”(SW I/7, 364)

『자유론』에서 처음으로 암시된 인간의 ‘이중적’ 자유 - 한편으로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신으로부터의 자유 - 는 일 년 뒤에 『개인강의』에서 같은 형식으로 전개된다. 말하자면, “절대적 존재자로서의 신은 절대적 자율적 존재이다. 그러나 비존재자(=자연)로부터 상승한 존

11) 여기서 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때의 ‘신’은 근거로서의 신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만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 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자로서(als ein aus dem Nichtseienden erhobenes Seiendes)의 인간은 자신의 본질과의 이러한 이중적 관계에 의해서 인간에 고유한 자유를 획득한다.”(SW I/7, 457) 요컨대 인간은 두 가지 원천을 자신의 내부에서 하나로 결합하는데서 이중적 의미의 자유를 가진다. 인간은 비존재자 혹은 자연에서 기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신으로부터 자유이며, 이에 반해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서 존재자 혹은 정신을 일깨운다는 사실에 의해서 자연으로부터 자유이다. 여기서 셸링의 자유의 이론이 주장하는 독특한 것은 신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성은 인간이 비존재, 실재적 원리 또는 신적 실존의 ‘근거’ 내지 자연에 자신의 뿌리를 가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절대자를 상위 단계의 절대자와 하위 단계의 절대자로 구분함으로써 “신 자체 안에 신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유 방식은 인간적 자유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본질적 전제이다. 오직 인간이 자연 혹은 비존재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내면적 독립성, 신과의 연관에서 인간의 자유”(SW I/7, 458)의 증명이 가능하다. 셸링은 이것의 증명이야말로 인간의 자유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본래적 과제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물음으로 간주하였다. 『자유론』과 달리 『개인강의』에서 이러한 물음은 특히 강조된다. 인간의 자유를 결정하는 다른 한 축인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은 인간에서의 자연은 자연을 넘어 정신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측면, 즉 한편으로 신으로부터의 자유와 다른 한편 자연으로부터의 자유를 셸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이 자연이라는 비존재와 신=절대적 존재자 사이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자연으로부터 자유롭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인 것은 인간이 자연에 독립적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유인 것은 인간에 있는 신적인 것이 일깨워지

기 때문이다. 인간에 있는 신적인 것은 자연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연을 넘어서 존재한다. 우리는 전자를 인간의 고유한 (본래적인) 부분이라 부르며, 이것에 의해 인간은 개인적·인격적 존재가 된다. 후자는 인간의 신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간이 무차별점에 위치해 있음으로서 인간은 - 물론 인간적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 자유롭다 (SW I/7, 458)

인간 자유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이 인용구로 끝맺는다. 이렇게 셸링은 『자유론』에서 개진했던, 자유의 개념에 얽힌 문제 가운데 핵심적 사항을 『개인강의』에서 다시 확인한다. 물론 셸링은 『자유론』에서 인간의 중간적 지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인강의』에서만큼 이를 강조하지 않는다. 비로소 『개인강의』에 와서야 신으로부터 인간의 자유(die Freiheit des Menschen von Gott)의 물음이 보다 무게있게 다루어졌다.

인간의 자유를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상대적 독립에 있다고 본 셸링의 관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이런 전제에서만 악의 가능성이 정당하게 사유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악이 절대자에게서 나온 결과가 되고 만다. 하지만 『개인강의』는 악의 개념에 그리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 않는다. 『개인강의』는 자유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셸링 철학에서 인간의 자유와 악의 가능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우선 『자유론』이 본질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인간 자유의 본질과 악

셸링은 『자유론』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자유와 연관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셸링은 『개인강의』에서 『자유론』에서 이미 논의된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기 때문에 우선 『자유론』이 제기한 새로운 관점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출발은 실존의 “근거” 가운데 있는 절대자와 “실존” 가운데 있

는 절대자의 구분하는데서 이뤄진다. 두 가지 개념 구분에 의해서 셸링은 한편으로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다른 한편 인간을 신적 생명의 외부에 설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새롭게 주장된 인간의 자율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즉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오로지 인간만이 절대적으로 악의 능력이 있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신과는 다른 인간 고유의 자유가 부가적으로 사유 가능하다. “근거”와 “실존”의 구분에 의해서 특수한 **인간적** 자유를 위한 존재론적 전제가 확인되었고 이제 이어서 제기되는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신의 자유 사이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셸링은 인간적 자유의 다음과 같은 개념 규정에서 찾는다. “자유는 실제적이며 생동적 개념은 인간의 자유가 선과 악의 능력이라 점이다”(SW I/7, 352). 인간적 자유의 고유성은 인간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악의**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악을 개념적으로 파악하여 악의 현상을 설명하고, 인간과 세상에서의 발생하는 악의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다. 셸링은 악의 해명을 위해서 악의 존재론적 기초를 원리적으로 새로이 규명하는데, 이에 따르면 악은 결함(Mangel)이나 결핍(Privation)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나쁜의 내적인 적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셸링은 어떻게 악이 인간의 의지(Wille)에서 발생하는지를 지적한다. 일단 셸링에 있어 인간의 의지는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생동적인 힘들의 결속(Band von lebendigen Kräften)”(SW I/7, 365)으로 되어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인간 의지의 모습은 실제적 원리로서의 “개별의지”(Partikularwille=고유의지, 자기성)와 관념적 원리로서의 “보편의지”(Universalwille)가 서로 얽히는 방법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두 가지 원리의 관계에 따라 선한 의지 또는 악한 의지가 형성된다. 선한 의지는 의지가 원래 갖추어야 할 모습대로 있는 의지이다. 선한 의지는 “원리들의 신적인 관계”를 표현하는데, 원리들의 신적인 관계는 고유의지가 보편의

지에 종속되는데서 성립한다. 따라서 선한 의지에는 “사랑의 정신”이 지배하며, 그래서 셸링은 사랑의 정신을 “신적인 방식과 질서 안에 있는 의지”(SW I/7, 365)라고도 부른다. 이에 반해 악한 의지는 인간에게서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전도되는 경우 근원적 의지의 타락한 형태를 서술한다. 말하자면 인간이 오직 자기성만을 추종하여 자기성을 지배적 원리로 삼는 경우 사랑의 정신의 자리에 “불화의 정신” 또는 악의 정신이 들어서게 된다(참조. SW I/7, 365). 셸링은 어쨌든 “악의 정확한 개념은 악을 원리들의 실제적 도치 또는 전도에서 성립한다”(SW I/7, 366)고 보는데, 악에 관한 이러한 모델은 이미 칸트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인간은 신 다음으로 자유로운 유일한 피조물이다. 셸링은 인간적 자유와 신적 자유 사이의 차이를 자신의 철학 원리에 근거하여 밝혀낸다. 두 가지 의지가 이루고 있는 근원적 질서가 전도되어 악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원리의 분열될 가능성을 전제하며, 원리의 분열가능성은 신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 안에서 분열되지 않은 통일성이 인간 안에서는 분열 가능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가능성이다”(SW I/7, 364). 신의 본질에 적합하게 신으로부터는 오직 선만이 유래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인간은 선과 동시에 - 불행하게도 - 악을 의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¹²⁾

셸링은 인간적 자유의 “실제적 개념”을 규명한 다음에 “자유 의 형식적 본질”의 규명을 시도한다(참조, SW I/7, 382). 우선 셸링은 자유의 형식

12) 셸링은 인간적 자유를 신적 자유와 구분하고, 인간에게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간에게도 신에 버금가는 능력이 부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셸링의 자유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전제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셸링이 이미 『자유론』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간은 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안에 있으며, 인간의 활동성 자체가 바로 신의 생명에 속하는 것”(SW I/7, 339)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신에 귀속함을 밝히는 것이 『자유론』의 본질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Vicki Müller-Lüneschloß, *Natur und Geisterwelt*, Stuttgart-Bad Cannstatt 2012, 221쪽 참조)

적 개념을 밝히기 위해 철학사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 일반적 입장을 소개하되, 이것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자유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자유는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대립 사이에서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하나를 취해야 하는 어떠한 규정적 근거도 없이 오직 단적으로 그 중 하나를 원하게 되었기에 원하는 것”(SW I/7, 382)으로 설명된다. 이런 자유의 개념은 행위의 무근거성에 따른 것으로서, 셸링에 의하면 행위의 무근거성은 자유를 우연성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성에 반한다. 또 다른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정의는 절대적 결정론이다. 이것은 모든 개별적인 행동을 과거에 뿌리를 둔 원인으로 환원하면서, 과거의 근거가 현재의 행위자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모든 행위의 경험적 필연성을 주장하는”(참조, SW I/7, 383) 체계가 성립한다. 자유의 본질을 밝히려는 이러한 시도는 역시 셸링에 의해 거부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행위는 끊임없이 규정되는 것으로 표상되고 결국 자유는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로소 관념론에 이르러서야 결정적으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되는데, 특히 칸트는 “지성적 존재”(das intelligible Wesen)의 개념에 의해 자유에 관한 물음에서 전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참조, SW I/7, 383). 만일 감성계에서와 같이 일체의 원인성이 자연 필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면 선험적 자유는 폐기될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자유를 위해서 (...) 사건의 계열을 전혀 자기에서 개시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¹³⁾ 이렇듯 칸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경험적 특성과 지성적 특성을 서로 구별함으로써 경험적 필연성과 내면적 자유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려 시도하였고, 셸링은 바로 칸트식의 구별에 의존하여 자유 개념이 지닌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셸링이 칸트를 참조하여 지적하듯이, 지성적 본질로서의 인간은 시간과 인과율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규

13)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1971, B 562.

정되며, 따라서 어떤 선행적인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성적 본질로서의 인간은 결국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참조, SW I/7, 383). 즉 자유를 모순없이 생각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차원은 인간에 대한 경험적 규정을 벗어난 ‘인간 자체’(das An-sich des Menschen)라는 개념에서이다. 하지만 셸링은 칸트가 제시한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셸링은 자유를 사유 가능하게 하는 전제와 자유의 본질을 규명하려 시도한다.

만일 자율적 행위가 완전히 비규정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우연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 행위는 완전히 비규정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내적 혹은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된다면 이 또한 자유의 본질에 위배된다. 따라서 자유는 결국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상태에서 성립해야 한다. 행위를 결정하는 제3의 규정성은 임의적인 결정의 영향을 배척할 뿐 아니라 단순한 자의도 배척한다. 요컨대 셸링이 염두에 둔 행위의 규정성은 인간 행위의 본질적 근거라 말할 수 있는 ‘인간 자체’에 근거한 규정을 의미한다. 셸링은 ‘인간 자체’의 개념이 특히 칸트에 의한 관념론에 의해 이미 개념적으로 정의되었다고 보면서, 자유의 규정성과 비규정성의 종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자유로운 행위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행위는 필연적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즉 선한 행위이거나 악한 행위이다.” (SW I/7, 384)

셸링의 자유 개념은 칸트가 제시한 인간의 지성적 본질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며, 행위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시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셸링의 사유 가운데 칸트를 넘어서는 것은 규정적 행위(eine bestimmte Handlung)라는 개념이다. 자유의 행위도 하나의 **규정된** 행위, 즉 행위자의 본질로서 항상 하나의 규정된, 개별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런 한에 있어서 하나의 규정된 행위는 하나의 필연적(notwendig)인 행위

이다. 이렇게 셸링의 자유 개념은 자유를 필연과 일치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셸링은 여기서 언급하는 필연성이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셸링은 이 필연성을 “상위의 필연성”이라 부르면서, “이 필연성은 (...) 행위자 자신의 본질로부터 생겨나는 내적 필연성”(SW I/7, 383)으로 정의한다. 즉 만일 내가 나의 고유한 본질에 의해 정립된 것에 따라 행위 한다면, 나의 행위는 결국 하나의 행위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필연적인 규정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셸링은 자유로운 행위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성적 존재는 단적으로 자유롭게 절대적으로 행위하는 한, 오직 그 자신의 내적 자연에 적합하게만 행위할 수 있다. 즉 그의 행위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직 동일성의 법칙에 따라서만, 그리고 절대적 필연성을 갖고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필연성은 또한 절대적 자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직 그 자신의 존재의 법칙에 적합하게 행위하고 그 안이나 밖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것만이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이다.(SW I/7, 384)

따라서 자유는 무한한 다양성 가운데 **선택**의 방식이거나 또는 서로 대립적인 것들 사이에서의 **결단**의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유는 행위자가 대상과 맺는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행위자의 자율성으로부터의 행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유다가 예수의 배반자가 되리라는 것은 그 자신이나 다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완전히 자유롭게 예수를 배반하였다”(SW I/7, 386).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행위는 그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었다가 부도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에서 행동하는 방식대로, 그는 영원으로부터 그리고 이미 창조시원에서부터 그렇게 행위하도록”(SW I/7, 387) “예정”(Prädestination)

(SW I/7, 387)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다는 비록 달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반 행위는 그의 책임인 것이다.¹⁴⁾

인간적 자유의 허용 가능성을 논의한 뒤 이제 셸링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와 신의 자유의 조화에 관한 물음과 대결한다. 사물의 신 안에 있음(Immanenz der Dinge in Gott)과 관련하여 셸링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오직 자유로운 것만이 그리고 그것이 자유로운 한에서만, 그것은 신 안에 있으며,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자유롭지 않은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신 밖에 있다”(SW I/7, 347)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신 안에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신 안에서 인간이 비로소 자유롭다는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위한 테제는 동일성철학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런 사고는 『전체 철학 체계』에서 집중적으로 서술된다. 동일성철학 단계에서 셸링은 인간적 자유의 현실성을 단순히 신적 자유에 ‘참여’로 제한하였고 이는 결국 개인적 자유의 거부에 이른다. ‘참여’라는 관념은 『자유론』에서도 타당성을 견지한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신 안에 있고, 그리고 바로 신-안에-있음(in-Gott-Sein)에 의해 인간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중심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머물러야 한다”(SW I/7, 411). 하지만 셸링은 『자유론』에서 이러한 인간의 신-안에-있음을 동일성철학에서와는 달리 해석한다. 한편으로, 인간이야말로 말로 정신과 신 자체가 자신을 내보이는 유일한 피조물인 한에서 인간의 신-안에-있음은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

14) 인간적 자유의 근거가 인간의 지성적 본질에 있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를 결국 세계적 발생 연관과는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간이 감각적 사슬(시간성과 인과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자신의 본질에 따라 순수이 행위할 수 있는 상태는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셸링은 대화편 『자연과 정신계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에서 “하지만 이런 식의 자유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행하기 매우 힘들거나 이런 자유를 전혀 실행할 수 없다”(SW I/9, 39)고 고백한다.(Vicki Müller-Lüneschloß, 같은 책, 224f. 참조)

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신-안에-있음은 인간 안에 신의 임재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새로운 결속의 시작이며, 인간 자신이 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개자로서의 인간을 통해 신은 (...) 자연을 받아들여 자신으로 만든다.”(ibid) 다른 한편, 신-안에-있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인 심성을 의미한다. 신-안에-있음은 인간적 의지와 신적 의지와 혼연 일치로 이해된다. 단지 “원리들의 신적인 관계가 성립하는”(SW I/7, 365) 선한 의지만이 신 안에 있으며, 이에 반해 악한 의지는 자기성에 속한 의지로서, 악한 의지는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동시에 인간을 신의 **밖에** 세워둔다.

셸링에게 자유는 인간적 본질의 실현과 밀접히 연관된다. 인간의 실현이란 곧 신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 테제는 1804년의 동일성철학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전체 철학 체계』에서 셸링은 인간을 다소 절대자의 실행 기관으로 묘사하였다.¹⁵⁾ 하지만 셸링은 『자유론』에서 인간적 의지에 의존함으로써 『전체 철학 체계』에서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셸링은 인간적 의지 또는 특수한 인간적 자유를 전제해서만 이 세상에서의 악의 현실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셸링은 동일성철학 단계에서 거부했던 악의 실재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유론』에서는 비로소 인격성, 자유, 의지의 인간학적 요소를 발전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는 인간 스스로가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적 의지와 신적 의지의 조화 또는 신-안에-있음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이 두 가지 원리의 근원적 관계를 전도함으로써 인간의 의지가 더 이상 신의 의지와 조화하지 않을 경우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상실한다. 이럴 경

15) “영혼에는 어떠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신적인 것만이 참되게 자유롭다. 그리고 영혼의 본질은 신적인 한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떠한 개인도 존재하지 않는다.”(Schelling, *System der gesamten Philosophie und der Naturphilosophie insbesondere*, SW I/6, 541f.)

우 인간의 행위는 인간적 본질의 실현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왜곡한다. 악한 인간은 자신을 상실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며, 단지 악을 실행할 뿐이다. 셸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인간적 자유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참된 자유는 신성의 필연성과 조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런 필연성을 본질적인 인식에 있어서 감각한다. 왜냐하면 정신과 심정은 오직 그들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 결합되어야만 필연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이다.”(SW I/7, 391f.)

1.4 지성적 행위와 악의 개념

창세기 3장과 얽혀있는 인류의 타락에 관한 물음은 다른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셸링의 관심사였다. 젊은 셸링의 석사논문 『악의 기원』(1792년)은 이를 잘 예증한다.¹⁶⁾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타락이라는 물음과의 대결은 이후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셸링 철학 체계의 일정한 부분을 구성한다. 셸링에게 인류의 타락은 곧 의식의 각성과 이성의 안내에 따른 자유에로의 첫 번째 발걸음의 상징으로 비췌다. 독일 관념론은 이성, 자유 등의 개념들을 통해 일단은 기독교적 전통에서 전승된 인류역사의 시작을 서술한다. 칸트 철학의 영향에 있던 1792년의 청년 셸링에 의하면 인간이 황금시대에서 하차하게 된 것은 이성을 따르며 의지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의식의 깨임과 함께 선과 악을 판별하게 되었다고 본다.¹⁷⁾ 이에 반해 『철학과 종교』에서는 플

16) Schelling, Antiquissimi de prima malorum humanorum origine philosophematis Genes. III. explicandi tentamen criticum et philosophicum, 1792, in: Historisch-kritische Ausgabe, hrsg. v. Wilhelm G. Jacobs, Jörg Jantzen u. Walter Schieche, 1976, (AA I,1,59-148). (최성환, “칸트와 셸링의 역사 구상”, 『칸트연구』, 2000, 238쪽 이하 참조)

17) 자연상태의 인간은 순전히 감각적 존재로 표상된다. 하지만 의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같등하게 되는, 감각적 존재와 지성적 존재의 분열의

라톤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에 따라 지상에서의 인류의 시작을 근원형상으로부터의 이탈(타락, Abfall)과 연관시킨다. 영혼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기성에 사로잡힌 영혼은 무한자를 유한성 자체에 종속시키려한다.”¹⁸⁾ 이러한 생각에는 보편성을 자기성에 종속시키는데서 악이 발생한다고 보는 『자유론』의 악의 개념이 엇보일 뿐 아니라 “지성적 행위”의 개념이 들어있다. 지성적 행위의 개념은 셸링이 칸트로부터 물려받은 개념으로서 셸링은 이 개념에 의해 인류의 타락에 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다. 셸링은 『개인강의』에서 ‘지성적 행위’와 연관된 인류의 타락과 이것에서 결과한 자연과 정신의 분리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한다.

칸트는 “인간 본성에 있어서 적극적 악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이 세계에서의 악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의 물음과 대결하였다.¹⁹⁾ 칸트는 세상에서 확인되는 악의 현실성에서 인간의 “악의 성향”²⁰⁾(Hang zum Bösen)을 추론하며 결국 유로서의 인간 본성의 타락을 주장한다. 칸트에 있어서 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마음가짐, Gesinnung)에 근거한다. 악한 심성은 “자유로운 선택의지의 동기들에 있어서 도덕적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²¹⁾ 발생한다. 요컨대, 악은 도덕법을 감각적 동기에 종속시키는 선택의지의 성향에 달려있다. 이런 경우 우리 행위의 지배적 원리는 “자기애”이며, 칸트는 이것에 “악의 근원”이 있다고 보았다.²²⁾ 하지만 최고 준칙의 전도를 야기하는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상위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셸링은 이러한 분열을 도덕적 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18) Schelling, *Philosophie und Religion*, SW I/7, 52

19) 칸트의 “인간 본성의 근본악에 대하여”(Über das radikale Böse in der menschlichen Natur)라는 논문은 1792년 ‘베를린 월간지’(Berlinische Monatsschrift)에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에 실려 출판되었다.

20)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in: Kants gesammelten Werke, hrsg. v. d. Königl.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1902-1923, VI, 27f.

21) Kant, 앞의 책, VI, 22.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우리는 무한 역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한 준칙의 전제를 위해 원인으로서 발견된 근원은 보다 상위에 있는 원인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악의 근원이 우리 내부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지성적 행위”²³⁾(intelligible Tat)라고 부른 초시간적 행위를 전제하게 된다. 인간에 본유적으로 속한 이러한 악의 성향은 그 원인이 인간에 돌려진 행위의 결과로서, 악의 성향은 인간 행위의 초시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급이 불가능하다. 칸트는 인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심성을 ‘근본악’(“Dieses Böse ist radikal”)²⁴⁾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모든 행위가 미리부터 악한 행위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지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칸트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항상 인간적 “선택의지의 근원적 사용”²⁵⁾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심성의 혁명”²⁶⁾이라고 할 수 있는 심성의 새로운 전향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 인간은 ‘당위성’(sollen)이 명령하는 모든 경우에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것을 감지한다. 바로 이런 사실은 심성의 전향을 근원적으로 가능하게 하는(können) 인간의 선한 소질(Anlage)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따라서 선을 위한 근원적 소질의 회복을 위해선 자율적 선택과 우리 행위를 규정하는 동기들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선한 소질의 회복은 도덕법칙을 우리 행동을 위한 최상의 준칙으로 확정함으로써 자연충동과 자기애의 원리가 도덕법을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칸트의 『종교론』은 셸링이 언급한 인간의 근원행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22) Kant, 앞의 책, VI, 45f.

23) Kant, 앞의 책, VI, 39.

24) Kant, 앞의 책, VI, 35.

25) Kant, 앞의 책, VI, 42.

26) Kant, 앞의 책, VI, 54.

27) Kant, 앞의 책, VI, 50.

역할을 한다. 셸링의 악에 관한 논의는 인간이 자신의 선과 악의 비결정 상태에 있었던 인간의 근원상태에서 시작한다. 셸링이 언급한 “지성적 행위”(SW I/7, 389)도 “모든 시간 밖에서 행해지며, (...) 최초의 창조와 함께 발생하는 것”(SW I/7, 385)으로 정의되는 점에서 칸트와 같은 맥락에 있다. 셸링에게서도 인간의 근원적 행위의 초시간성(Außenzeitlichkeit)은 근원적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형성한다. 지성적 행위는 “영원한 행위”(SW I/7, 386)로서 한번 실행되면 인간과 연관된 자신의 영원한 영향을 지속한다. 말하자면 “인간이 여기에서 행동하는 방식대로, 인간은 영원에서부터 그리고 창조의 시원에서부터 그렇게 행위하였다”(SW I/7, 387)는 것이다.

창조에 있어서 근거가 계시에 대해 반작용을 하면서 악이 일반적으로 자극되고 나면, 인간은 영원성에 있어 고유성과 자기욕에 사로잡히게 되며, 탄생하는 모든 것은 악의 고착적인 어두운 원리를 갖고 태어나게 되지만 악은 그 반대의 것의 출현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의식에 떠오르게 된다. (SW I/7, 388)

칸트가 악의 원천을 자기애를 행위의 원리로 삼는데 있다고 본 것처럼, 셸링은 인간이 실재적 원리를 선택하거나 또는 인간이 자기애에 사로잡힘으로서 인간이 ‘타락’한다고 보았다. 셸링도 역시 칸트에 의지하여 “오직 자신의 고유한 행위에 의한 발생하였으되, 탄생에서부터 야기된 악을 근본악”(das radikale Böse)(SW I/7, 388)이라 불렀다.

하지만 셸링은 칸트의 지성적 행위의 개념에 두 가지 의미를 더 부가한다. 한편으로, 셸링은 지성적 행위 개념에 내포된 **개인적** 특성에 주목한다. 우선 셸링은 지성적 행위는 모든 개별 인간에 의해 수행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지성적 행위의 개념은 기독교의 원죄설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의 원죄설에 의하면 인간은 아담이라는 근원인간의 원초적 행위의 결과로 타락하였다. 이에

반해서 셸링은 모든 개인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강조한다. 악은 “보편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악은 항상 인간의 고유한 선택으로 남는다. 근거가 악을 악으로서 만들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은 그 자신의 죄로 타락하는 것이다.”(SW I/7, 382) 지성적 행위의 개인적 성격으로부터 또 다른 부가적인 의미가 도출되는데, 인간의 자신에 대한 책무(Selbstbestimmung)가 그것이다. 셸링에 의하면 인간이 개별적으로 가지게 되는 고유한 개인적 특성과 성격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은 이미 그 행위(지성적 행위 - 필자)에 의해 그의 전체 (존재 - 필자) 방식과 특성이 규정된 것이며, 바로 이 최초의 창조(지성적 행위 - 필자)에서 규정된 형태로 파악되고 영원한 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SW I/7, 387)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하이데거가 “악의 형이상학”²⁸⁾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셸링은 시원적 창조에서 ‘근거’가 자극되어 악이 현상할 때까지 ‘근거’가 역사에 지속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태에 주목한다. 이런 셸링의 생각에는 악의 실재성이 선과 사랑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이라는 관념이 그 근거에 있다. 즉 사랑은 오직 악에 대한 변증법적 반작용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의 발생에 원천적 동기는 인간이며, 선악 행동의 결정적인 열쇠는 인간이 지니고 있다.

인간은 선과 악으로의 자기 운동 원천을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 안에 갖는 그런 정상에 세워졌다. 인간 안의 원리들의 결속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인간은 분리 지점에서 서 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는 비결정성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제시해야 하며, 창조에 있어서 결코 애매하게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SW I/7, 374)

28) 하이데거(최상욱 역), 『셸링』, 동문선, 1996, 159쪽 이하 참조.

신이 계시되고 선이 현실화되기 위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셸링이 거듭 강조하듯이 악의 현실화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오직 인간에 있다. 왜냐하면 악의 “보편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악은 항상 인간의 고유한 선택으로 남기 때문이다. 근거가 악으로서의 악을 만들 수 없으며, 모든 피조물은 그 자신의 죄로 타락한 것이다.” (SW I/7, 382)

이상에서 보았듯이 셸링은 『자유론』에서 기독교의 원죄설을 인간의 지성적 행위 개념에 맞도록 변화시켰다. 지성적 행위의 개념은 일단 칸트에 의해 수립되었지만 이 개념은 셸링에게서도 인간의 고유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셸링은 실재적 원리와 관념적 원리의 상호 관계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론에 의해서 인간에 속한 고유성을 파악하였고, 두 원리 사이의 관계가 전도되는데서 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강의』에서도 이러한 기본틀은 수용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요 논점은 인간을 선과 악으로 양극화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사적으로 조건지워진, 인간의 자연과 신 사이의 특수한 위치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신 사이에 중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적 원리를 위해 결정할 것인지 또는 자연적 원리를 위해 결정할 것인지의 물음은 인간에게 더욱 긴요하게 되었다. 인간의 결정은 결국 신적 생명을 자연적 생명에 종속시킬 것인지 내지 자연적 원리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달려있다(참조, SW I/7, 458f.). 셸링이 여기서 강조하는 또 다른 것은, 인간이 창조 가운데서 중간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에 부가된 책무에 관한 것이다. 이 의무는 인간이 자연과 정신계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강의』의 원래 주제는 『자유론』에서처럼 지성적 행위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정신계 사이의 파괴된 관계로부터 나오는 ‘귀결’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연과 정신계의 관계 설정은 인간의 숙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2.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단절

셸링에 있어 시원적 행위의 결과로서의 인간과 신의 분리와 이 분리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정신계의 이분화는 셸링의 고정적인 주제이다. 예를 들어 『개인강의』 게오르기(Georgii) 필사본에서 셸링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투쟁”, “작은 전쟁” 등의 용어로 묘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배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연의 “해방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자연의 지배자로 묘사되기도 한다.²⁹⁾ 또 여기에는 타락에 대해서 뿐 아니라 타락이 인간과 자연에 끼친 귀결 그리고 미래의 진보에 관한 생각들이 서술되어 있다. 셸링은 이미 석사논문에서 뿐 아니라 『개인강의』에서 신화에 담긴 형상적 언어(Bildersprache)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즉 타락에 관한 성서의 서술은 단지 신화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화적 이야기라는 것이다. 셸링은 인간의 근원적 타락을 다음과 같이 필연적 요청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인간이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 자연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이는(원죄-필자)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참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자연과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³⁰⁾

자연과 정신계 사이의 중간적 지위로서의 인간에는 자연과 정신의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도 주어진다. 셸링은 인간에 부여된 중간적 지위로서의 기능을 자연철학적으로 정초한다. 즉 **자연**으로부터 고양되어 나온 **정신**

29) Schelling, *Stuttgarter Privatvorlesungen*, Version inédite, hrsg. und kommentiert von Miklos Vetö, Turin 1973, 171-173.

30) Schelling, 앞의 책, 167.

으로서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적 원리와 정신적 원리를 자신 안에서 결합해야 한다. 자연과 정신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곳이 다름 아닌 인간이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연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매개해야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만일 자연의 세계가 정신적 생명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우연, 모호성 그리고 불안정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 외에 “현존하는 악”(die Gegenwart des Bösen)이 자연을 지배하게 된다. 악은 도덕 세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나타난다. 질병, 독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현상들이 악에 속한다(참조, SW I/7, 459). 셸링의 이런 고찰 가운데 중심 내용은 인간의 지상적 현존에 대한 반성이다. 인간의 자기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간은 정신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셸링이 말하는 “자연으로의 퇴행(zurücksinken)”(SW I/7, 460)이다. ‘자연으로의 퇴행’이 다름 아닌 인간의 ‘타락’으로서 이 이후에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육체성과 그리고 내적인 것을 억압하는 외부적인 것에 지배받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³¹⁾ 이런 맥락에서 셸링은 “인간 자체는 물론 정신이기는 하지만 하위 포텐츠(=자연 - 필자)의 지배하에 머문다”(SW I/7, 459)고 말한다. 이러한 퇴행이 모든 개별 인간의 구체적 삶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자연이 인간에 이르기까지 거쳐 온 전체 과정을 인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간이 직면한 과제는 인간의 정신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 말하자면 셸링이 변용(Verklärung)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인간의 의식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인간은 “이제 다시금 비존재로부터 상승하여, 어둠을 몰아내야하며, 그리고 질은 어둠으로부터, 악의 어둠으로부터,

31) 게오르기 필사본에는 다소 극적인 예들이 명기되어 있다. “인간에서 모든 것이 기초적인 것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형상을 띠거나 유용성의 형상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숭고한 연구 분야가 소모적인 연구로 강등되었다.”(Schelling, 앞의 책, 173)

오류, 타락의 오류로부터 선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아름다움의 빛을 불러내야 한다.”(SW I/7, 459)

인간에 의해 생명적인 조직을 표현했던, 자연계와 정신계의 근원적 관계는 앞서 말한 인간의 근원 행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근원적 관계의 단절은 자연계에서 뿐 아니라 인간성에도 그대로 침전되어 자연과 인간은 각각 독립적인 왕국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에게 더 이상 실질적 통일은 내재하지 않는다. 자연에서의 유기적 통일의 부재로 인해 자연은 “무기물”(SW I/7, 460)이 되었으며 자연에는 “원소들의 투쟁”(SW I/7, 462)이 지배한다. 인간의 조직화된 공동 생활에도 유사한 상황이 적용된다. 인간 공통체에서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고 발견될 수도 없는 화합을 보여주는 극명한 현상이 (...) 전쟁”(SW I/7, 462)이다. 자연과 인간성에 걸고 있는 “참된 합일점”(참조, SW I/7, 461)은 오직 신 가운데만 존재한다. 인간은 사라진 합일을 인간적 방법으로 회복하려 하지만, 애초부터 실패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시도가 곧 국가와 교회이다.

3. 통일의 회복으로서의 국가와 교회

국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셸링의 언급은 지극히 드물다. 예전 대학 신학부 동료였던 헤겔과 달리 셸링은 국가와 관련된 어떠한 글도 발표하지 않았다. 셸링의 입장 표명은 개별 논문에 흩어진 채로 발견될 뿐이며 그것도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적’ 셸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간단치 않다. 아래에서는 『개인강의』에서 언급되는 국가 개념을 셸링의 전체 논문과의 맥락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셸링의 정치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셸링의 가장 이른 저술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기획』을 제외하면 『자연권의 새로운 연

역』(1796)³²⁾이 셸링의 유일한 법철학적 저술이다. 몇 년 뒤에 발표한 글들에서 맥락에 따라 정치적 언급이 나타나곤 하는데 『선험적 관념론의 체계』가 그러한 저술에 속한다. 여기서 셸링은 국가가 아니라 일반 법제도의 실현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셸링은 법학을 도덕과 실천적 학문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순수한 이론적 학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질서는 도덕질서가 아니라 단지 자연 질서이며, 자유는 감각적 자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질서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³³⁾ 법제도의 실현의 본질적 특징은 기계론적 성격을 지닌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법학은 자유로운 존재자들의 자유로운 존재자들로서의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 있기 위한 자연메카니즘만을 연역하기 때문이다.”³⁴⁾ 선험철학 단계에서 셸링은 법제도를 “기계”³⁵⁾로 묘사하지만 몇 년 뒤에는 이 생각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동일성철학의 저술들에서는 기계론적 사유 대신에 유기체적 사유가 나타나게 된다.³⁶⁾ 여기서 국가는 “우주의 전범에 따라”(참조, SW I/6, 575) 사유될 뿐 아니라 신적인 것의 객관화 또는 “절대적 생명의 직접적인 그리고 가시적 형상으로”(SW I/5, 316) 간주된다. 셸링의 1803~1804년의 저작들이 비록 정치적 상황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이념과 연관하여 일반

32) Schelling, *Neue Deduction des Naturrechts*(1796), in: *Philosophisches Journal einer Gesellschaft Deutscher Gelehrten*, hrsg. v. F. I. Niethammer u. G. Fichte, Bd. 4, Neu-Strelitz 1797(AA I,3, 137-175)

33) Schelling, *System des transzendentalen Systems*, III, 583f.

34) Schelling, 앞의 책, 583f.

35) *ibid.*

36) 슈람(Schramm)은 셸링에 있어 국가 개념의 발전에 대한 서술 가운데 유기체 개념이 어떻게 19세기 국가에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지적한다. 칸트와 피히테에 있어 유기체는 국가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비였으나 셸링은 비로소 “유기체를 모든 철학의 중심 개념, 즉 국가의 중심 개념”으로 간주한 첫 번째 사상가였다는 것이다. (Gerhart Schramm, *Das Problem der Staatsform in der deutschen Staatstheorie des 19. Jahrhunderts. Insbesondere in der Staatsphilosophie des Idealismus*, Berlin 1938, 161)

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완전한 국가에 대한 이상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개인강의』에서 단박에 바뀐다. 홀러바흐는 1804년의 동일성철학 단계의 『전체 철학 체계』와 『개인강의』를 비교하면서 “밝은 낙관주의에서 국가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로의 변화”로 묘사하였다.³⁷⁾ 완전한 국가에 대한 이상 뿐 아니라 유기체적 사고가 폐기된 것이다. 이제 셸링은 국가의 위협과 “해악”(SW I/7, 462)을 지적한다. 셸링이 『개인강의』에서 제기한 몇 가지 국가 개념을 언급해보면,

셸링은 1800년과 1804년에 국가를 “두 번째 자연”³⁸⁾으로 묘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셸링의 입장은 『개인강의』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선화하면서 국가를 “자연통일체”(SW I/7, 461)로 규정하였다. 국가적 통일체는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위해서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특성을 지녔다. 국가는 “자체 내부에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다. 국가는 “오직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SW I/7, 461) 통일체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신적이고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셸링은 형벌과 규칙들로 이해되는 물리적 수단들에 대립하여 정신적 동기와 이성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대립시켰다. 셸링이 1802-1804년에 간직했던 정치적 입장과는 달리 국가에 대한 보다 부정적인 판단에 도달하게 된 데에는 당시 뷔르템베르크의 실제적인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왕의 새로운 압제적 통치와 엘리트들 사이에 널리 퍼진 정치 혐오는 셸링에 영향을 끼쳤다.

37) Alexander Hollerbach, *Der Rechtsgedanke bei Schelling*, Frankfurt a.M. 1957, 194, 홀러바흐는 “셸링이 완전한 국가가 실현되거나 또는 역사의 진행 가운데 완전한 국가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다.”(192)고 지적한다.

38) Schelling,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III, 583. *Philosophie und Religion*, VI, 65.

나의 생각은, 국가 일반은 결코 참된 통일, 절대적 통일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은 이와 같은 통일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에 불과하다. 국가들은 유기적 전체가 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와 같이 될 수는 없다. 또는 국가들은 변창하고, 무르익다, 결국 노쇠하여,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유기적 존재와 같다. (SW I/7, 462)

1810년 당시 셸링에게 완전한 국가는 결국 단지 환상이거나 또는 순수 유토피아일 뿐이기에, 국가는 결국 초지상적인 저 세상의 상태에 투사되어 묘사된다. “참된 국가는 지상에서의 천국을 전제하며, 참된 국가(폴리테이아)는 오직 하늘에만 존재한다”(SW I/7, 462). 정치적 이념을 언급할 때 항상 염두에 두었던 플라톤에 의지하며 셸링은 자신의 이상이었던 이성 국가는 자유와 순수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셸링의 마지막 정치적 언급은 『신화철학 서론』에서 발견된다. 셸링은 23번째 강의에서 국가 개념에 관한 폭넓은 입장을 서술하면서 재차 기존의 관점을 확인한다. 하나의 완전한 국가는 실현될 수 없으며 이런 자신의 입장이야말로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서 필연적이며 지속적이고 그리고 영원해야 할 하나의 상태가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가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 세계가 단순히 어떤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아 왔다. (...) 만일 어느 누가 이 세계에서 하나의 완전한 국가를 원한다면 그 종착점은 (...) 몽상이다.³⁹⁾ (SW II/1, 552)

후기 셸링에서 국가와 법률은 1810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타락’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타락은 사물의 지성적 질서로부터의 인간의 이탈로 이

39) Schelling,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r Mythologie*, SW II/1, 552.

해되는 바, 인간의 이탈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로부터 역으로 셸링이 원래 품었던 국가의 이념을 추정할 수 있다. 셸링은 국가는 지성적 질서 자체의 표현이자 지성적 질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국가에는 인위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를 이끄는 것은 국가이며 사회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본질을 전개할 수 있는 자율적이며 고상한 공동체라는 것이다.⁴⁰⁾ 이렇게 국가는 한편으로 절대적 본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다른 한편 불안정한 존재이다. 요컨대, 국가는 단지 외면적 공동체로서 잠정적 질서를 표현할 뿐이기에 영원히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국가의 이상적인 역할과 현실적인 국가의 물리적 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셸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의 질서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지양되어야 할 뿐이다. 목적은 지금과 같은 질서가 아니라 현재의 것을 대신하여 들어서게 되어 있는 질서이다.”⁴¹⁾ 요컨대, 국가는 한편으로 절대적이며 불가촉(unantastbar)의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 국가는 극복되어야 할 불안정한 존재라는 점에서 국가는 분열적 본성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방금 언급된 것이 후기 셸링에 나타난 국가 개념으로서, 1810년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셸링의 후기 철학에서도 역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셸링은 『개인강의』에서 결정적으로 국가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꼭 외적인 정치적 상황에만 결정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원인은 셸링이 1809년 공적인 활동에서 물러난 뒤에 그의 철학이 다른 방향을 취한 것과 같이 셸링 개인사에 달려 있기도 하다.

셸링이 인류의 상실된 통일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가 교회이다. 『개

40) Schelling, 앞의 책, SW II/1, 541 참조.

41) Schelling, 앞의 책, SW II/1, 552.

인간의』에 의하면 국가와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되 국가의 목표는 “외적인 통일”(SW I/7, 464)을 산출하는데 있고, 교회의 목표는 인류를 위해 “내적인 통일 또는 심정의 통일”(참조, SW I/7, 463)을 성취하는데 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는 -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 외면적 힘에 의지하여 자신을 확립하려한데 그 원인이 있다. 셸링은 이러한 사정을 “기독교가 유럽에 유입되면서” 시작한 “새로운 역사”(SW I/7, 464)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근원적 통일의 일차적 산출은 교회에 그리고 이차적 산출은 국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그러한 통일의 산출이 연속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요컨대,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보편적 지배력을 획득하였지만”⁴²⁾, 교회는 “모든 외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순수성에 머무는 대신 국가의 형식들을 수용하였다”(참조, SW I/7, 464)는 것이다. 하지만 “참된 것과 신적인 것은 외적인 권력에 의해 촉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교회가 비신앙을 추종하자마자 교회는 참된 이념을 상실한다.”(SW I/7, 464) 이렇게 교회가 권력의 획득과 제도화를 목표로 했던 때를 셸링은 “교회의 위계적 시기”라고 부르면서, 이때 교회가 범한 오류는 국가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데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셸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한 정신의 혁명에 의해서 “위계질서의 몰락”(SW I/7, 464)이 도래하였고, 이로써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인류의 미래와 관련한 셸링의 사유는 전적으로 비정치적이다. 셸링의 논의는 “오직 종교적 길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SW I/7, 464) 상실된 통일의 회복이 어떻게 추구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인류는 내면적 통일에 의해, 즉 신 가운데 성취되는 합일에 의해서만 화합할 수 있다”⁴³⁾는 말이다. 이렇듯 게오르기 필사본에 의하면, 셸링은

42) Schelling, *Philosophie der Kunst*, SW/5, 434f.

43) Schelling, *Stuttgarter Privatvorlesungen*, Version inédite, hrsg. und kommentiert

지상에서 통일과 선의 확립이 인류와 국가에 의해 성취되는 것도 사유 가능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보편적 과정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 셸링은 상실된 통일이 정치적 삶에 정향됨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추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는 결국 인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부된다. 국가의 운명은 인간이 종교적 인식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종교적 원리를 전개하든지 또는 전개하지 않든지 간에 인간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1810년에 셸링은 국가는 종교적 기반을 가져야할 필연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셸링은 먼저 인류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정의로움과 양심을 확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외면적인 약속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내면의 과정에서만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셸링은 일단 내면화를 위한 조건이 기반으로서의 민중 가운데 충족될 때 비로소 국가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셸링이 국가를 언급할 때는 거의 부정적인 것과 연관시킨다. 그는 수시로 국가는 맹목적 폭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든지 또는 보다 지성적인 것으로 정향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셸링은 지상에서의 인류의 궁극적 운명에 관해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링은 각 개인을 향한 긍정적인 격려와 함께 달성해야 할 합일은 집단적 과정에 의해서 산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는 안되며, 대신 결속된 모든 국민이 널리 퍼진 종교적 확신의 바탕에 서도록 국가는 종교적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von Miklos Vetö, Turin 1973, 180.

나오는 말

지금까지 『개인강의』를 바탕으로 인간적 자유와 악의 개념,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단절, 그리고 단절의 회복을 위한 제도로서의 국가 및 교회에 대한 셸링의 논의를 추적하였다. 특히 인간적 자유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 셸링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성’의 개념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는 동일성철학 단계에서 후기 셸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셸링이 의미한 ‘인격성’의 개념은 동일성철학에서의 절대자의 개념을 포기하면서 성립한다. 절대자는 개별적 사물에서 작용하고 행위하는 스피노자적 의미의 절대적 실체가 아니다. 개별적 사물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셸링은 절대자의 본질을 ‘실존’하는 한에서의 존재와 실존의 ‘근거’로 구분하면서, 사물들이 절대자의 본래적 존재 혹은 절대자의 ‘실존’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실존의 ‘근거’에서 산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로써 사물들은 한편으로 신과는 분리된 것으로 사유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과 완전히 독립적인 것도 아니다. 절대자의 존재론적 구분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간은 한편으로 절대자의 ‘근거’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성’ 내지 ‘고유의지’를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 관념적 원리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계기, 즉 ‘보편의지’를 가진다. 이 두 가지 존재 원리로부터 오직 인간만이 ‘고유의지’를 ‘보편의지’로 끌어 올려 두 가지 원리를 결합함으로써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셸링이 말하는 ‘인격성’은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가지 요소가 최상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서 통일에 도달하는데서, 즉 “정신적으로 고양된 자기성”에서 성립한다.

인간의 자유는 ‘자연’과 ‘신’에 기반하여 성립한다. 인간의 자유가 신과 피조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은 자연

과 신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상대적 독립은 악의 가능성을 위해 필연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악이 절대자에서 나온 결과가 된다. 요컨대, 인간의 자율성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오로지 인간만이 절대적으로 악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신적 자유와 구별되는 인간적 자유의 실제적인 개념은 인간의 자유가 “선과 악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셸링에게서 악은 결합이나 결핍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선이 실제적 원리로서의 ‘개별의지’(=고유의지, 자기성)가 ‘보편의지’에 종속하는데서 성립한다면, 악은 두 가지 원리가 ‘전도’됨으로서 발생한다.

인간적 자유의 실제적 개념을 규정한 다음에 셸링은 자유의 형식적 개념을 규명한다. 셸링의 자유 개념은 인간적 자유의 가능성을 ‘인간의 지성’에 둔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칸트가 말한 소위 ‘지성적 행위’의 개념의 영향에서 성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규정된 행위라고 보는 점에서 칸트를 넘어선다. 셸링의 자유 개념은 자유와 필연이 일치하는데서 성립한다. 셸링은 자유가 필연성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컨대,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 자신이나 다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지만(필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예수를 배반하였다(자율)는 것이다. 유다는 “여기에서 행동하는 방식대로, 그는 창조의 시원부터 그렇게 행위하도록” “예정”되었다. 따라서 유다는 비록 달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그의 책임인 것이다.

셸링은 실제적 원리와 관념적 원리의 상호 관계에 관한 형이상학에 의해 인간 고유성(인간성)의 이론을 수립하였고, 두 가지 원리 사이의 관계가 전도됨으로서 악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제 인간이 지닌 관념과 실제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연과 정신적 세계를 매개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다. 만일 자연이 정신적 생명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모호성, 우연, 불안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악은 도덕적

세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있다. 질병, 독약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자연의 악에 속한다. 인간이 지상적 삶에서 반성해야 할 것은 만일 인간이 자기성에 사로잡힐 경우 인간은 “자연으로 퇴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 간의 화합의 불가능성은 전쟁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단절”과 통일의 회복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국가와 교회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된다.

하지만 실상 국가와 관련된 셸링의 글은 여러 저술에 단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정치적’ 셸링을 그리는 것은 간단치 않다. 일단, 동일성철학 단계에서 국가는 유기체적 사유 방식에 따라 신적인 것의 가시적 형상으로 간주된다. 이 시기에 국가의 이념과 연관하여 셸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1810년 『개인강의』에서는 국가에 대한 유기체적 사고의 폐기와 함께 낙관주의를 포기한다. 국가적 통일체는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국가는 오직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통일체로서 정신적이고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셸링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었던 플라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의 국가는 이성국가의 조건인 자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의 이상은 환상이라고 보았다. 셸링은 이렇듯 『개인강의』에서 가시화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후기 셸링에서 그대로 지속된다.

참고문헌

- 최성환, “칸트와 셸링의 역사 구상”, 『칸트연구』, 2000.
- 최신한, “선악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유”, 『인간적 자유의 본질』, 한길사, 2000.
- 박영선, “셸링철학의 원리와 신의 개념”, 『대동철학』, 2013.
- 하이데거(최상욱 역), 『셸링』, 동문선, 1996.
- Schelling, *Sämtliche Werke*, I. Abteilung(Bde.1-10), II. Abteilung(Bde.1-4), hrsg. v. K. F. A. Schelling, Stuttgart/Augsburg 1856- 1861.
- _____, *Neue Deduction des Naturrechts*(1796), in: *Philosophisches Journal einer Gesellschaft Deutscher Gelehrten*, hrsg. v. F. I. Niethammer u. G. Fichte, Bd. 4, Neu-Strelitz 1797 (AA I,3, 137-175).
- _____,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r Mythologie*, SW II/1.
-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1971.
- _____,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in: *Kants gesammelten Werke*, Bd. VI, hrsg. v. d. Königl.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1902-1923.
- Christian Iber, “Prinzipien von Personalität in Schellings ‘Freiheitsschrift’”, in: *Alle Persönlichkeit ruht auf einem dunkeln Grunde*, hrsg. v. Thomas Buchheim und Friedrich Hermann, Berlin 2004.
- Vicki Müller-Lüneschloß, *Natur und Geisterwelt*, Stuttgart-Bad Cannstatt 2012.
- Gerhart Schramm, *Das Problem der Staatsform in der deutschen Staatstheorie des 19. Jahrhunderts. Insbesondere in der Staatsphilosophie des Idealismus*, Berlin 1938.
- Alexander Hollerbach, *Der Rechtsgedanke bei Schelling*, Frankfurt a.M. 1957.
- Franz Josef Wetz, *Friedrich W.J. Schelling zur Einführung*, Hamburg 1996.

Der Begriff der menschlichen Freiheit bei Schelling und der Staat und die Kirche als ein Versuch der Wiederherstellung der Einheit

Park, Young-Sun (Chung-Ang Univ.)

Schelling hat die Schrift *Darstellung meines Systems*(1801) als die bislang einzige wissenschaftliche Darstellung seines Systems gehalten. Jedoch sei hier das System unvollendet geblieben, weil in ihr lediglich die Naturphilosophie entwickelt worden ist. Nun bedarf es außerdem einer Philosophie des Geistes, die Schelling den idellen Teil der Philosophie nennt. Also geht es in diesem Aufsatz darum, den idellen Teil der Philosophie in den *Stuttgarter Privatvorlesungen*(1810) Schellings darzustellen. Dafür wird zuerst der Begriff von der menschlichen Freiheit und der Persönlichkeit untersucht. Zweitens wird die Sonderstellung des Menschen als ein Zwischenwesen von Natur und Gott untersucht. Der Schritt hierzu liegt darin, den Stellung des Menschen von Gott mithilfe der Unterscheidung des Absoluten in Grund und Existenz unterzuscheiden. Drittens wird der Begriff des Bösen bestimmt, d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bildet. Der reale Begriff der Freiheit liegt darin, daß sie ein Vermögen des Bösen sei. Das Wesen der Freiheit liegt also in der Möglichkeit des Bösen, zu dem allein der Mensch fähig ist. Letztens geht es um die die Verantwortung des Menschen, die ihm aus seiner Zwischenstellung in der Schöpfung zukommt, weil er das Bindeglied zwischen der Natur und der Geisterwelt ist. Damit zusammen wird die Stellungnahme

철학탐구 제35집

Schellings zu der Funktion des Staats und der Kirche angegeben.

Key words: Philosophie des Geistes, Persönlichkeit, Existenz, Grund,
Böse, Freiheit

박영선 e-mail: yspk57@cau.ac.kr

투 고 일	2014년 04월 01일
심 사 일	2014년 04월 27일
게재확정	2014년 05월 13일